

주간 증시 포커스

금리인상 경제 전반에 부담될 듯
업종·테마별 순환매 양상 긍정적
업종 대표주 중심 상승시도 예상

지난주 국내증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과 미국기술주 하락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월요일 외국계 IB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가격부진과 메모리 사업정체 가능성을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조건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행 대형 IT에 차익실현물량을 내놓으며 삼성전자가 5% 넘게 하락했고, 목요일에는 그동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기술주(FANG주식: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급락으로 외국인투자자가 SK하이닉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을 중심으로 순매도가 집중됐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들어 최대규모인 5999억원을 순매도했고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7% 하락해 2475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제약·바이오와 전기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 초반 변동성이 확대되며 조정세를 보였지만, 수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제약·바이오 및 중국소비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하며 주 후반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주 언급됐듯이 최근 급등한 코스닥지수가 급격한 가격조정보다는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 양상을 통해 기하가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며 기간조정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순환매 이후 업종대표주를 중심으로 상승시도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50%로 0.25%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을 금융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금리인상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통화정책기조가 재확인되었음에도 저금리 기조가 사실상 마감되었다는 부담감과 향후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신용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주에도 미국 성장주(FANG) 주가조정과 반도체 경기냉랭으로 기술주의 약세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경기확장 기대감에 따라 자동차 소재 산업 등으로 관심이 증가하며 코스피지수는 2500선 회복시도가 예상된다. 국내 증시 상승과 함께 최근 미주국정에 비해 급격한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반등세로 돌아서며 외국인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 코스피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주주지분요건 강화에 따라 매물부담이 있지만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닥시장 반등의 중심축이 되고 2018년에도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오·헬스케어와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국반방문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당국의 빈부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의 지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장>

“농업소득 안정 위해 연령·규모별 맞춤형 지원 필요”

농촌경제연 ‘농가유형 소득변화’

갈수록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서 농업인들이 겸업이나 사업 등 농사 외 소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감소와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영농규모와 농장경영주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발표한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농외소득과 이천소득은 각각 3.8%, 6.5%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0.5% 증가해 그 비중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농가의 소득비중은 농외 41.0%, 농업

농촌 고령화 심각 ... 소득 격차도 갈수록 커져
농업외 소득 의존 높아 확실적 영농정책 한계

27.1%, 이전 23.6% 순으로 나타났는데, 농가의 농외소득이 증가한 것은 가계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를 농업소득 성장속도가 미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농업소득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0.5% 증가한 것에 그쳤으나, 농가의 가계지출은 같은 기간 무료 3배를 뛰어넘는 1.7%가 증가했다.

농가가 농사가 아닌 다른 소득활동에 나서게 되면 또다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농장 경영주 나이와 영농규모에 따라 농가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농장 경영주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의 66.5%로 가장 높았던 반면, 40세 이하 농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2008년 이후 65세 이상 비중이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등 국내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갈수록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9세 이하 농가의 소득은 7755만2000원으로, 60~69세(4263만7000원)와 70세 이상(2447만6000원) 농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익을 올렸다.

고령의 영세농업인의 비중이 커지고 이들의 영농규모와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이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정책 말고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요즘 들어 실제 농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전체적 농가소득의 불평등을 높이고 있다”며 “더 이상 영농규모 유지가 어려운 고령영세농가에 일반적인 농업소득 증가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평창올림픽 비인기 종목 입장권 구입 기부

농어촌공사, 성공 개최 기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지난 1일 나누본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정승 사장은 이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인기 종목 입장권을 구매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

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회기간 우수를 무상공급하기로 했으며 101개 지방부서와 공사 SNS 채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또 경기장 인근 농촌마을에 SNS 기자단을 초청하고 올림픽 성공개최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동시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SNS 및 웰촌(www.welchon.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서농협 사과공선출하회 ‘우수 생산자 조직’

농협 전남지역본부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지난 1일 삼서농협(조합장 이태영) 사과공선출하회를 ‘2017년 하반기 우수 생산자조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삼서농협 사과공선출하회는 공선회에 가입한 37개 농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이상 물량이 증가한 증가한 37%, 공동계산액은 280% 성장한 11억7900만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생산자조직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천 조직 공동계산 실적 류별 상위 30% 이내, 최소금액 10억원 이상, 농협 취급수수료율 2%이상, 유실적 회원 10인 이상, 전년대비 물량 및 금액 성장률을 실현한 조직에 한해 14개 항목 종합 심사를 평가해 이뤄졌다.

이흥목 본부장은 “생산자조직화는 대외환경과 소비시장의 요구 및 정책적인 지원 등의 측면에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라며 “우수한 생산자조직을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화학적 분석법’ 개발

돼지고기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화학적 분석법’을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화학적 분석법은 유기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성분의 함량 차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 매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산이 국산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낮아 지속

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에 따른 피해 규모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사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돼지고기의 원산지 단속이 주로 육안 식별에 의존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돼지고기는 통상 전 세계적으로 육성하는 품종이 똑같아 유전자 분석으로는 국산·외국산 간 판별이 어렵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원산지 판별 기술은 유전자와 같더라도 국가별로 사료나 기후 등 사육환경이 서로 달라 유기성분 함량 등 육질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활용했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돼지고기 시료 내 유기 및 무기성분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농관원은 단속 때마다 모든 시료를 다 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새로 개발된 판별 기술은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객관적 증거 확보를 하는 데 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nam Kwangju. It features three main sections: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Pyeongtaek land distribution), '영광주택 매매' (Yeonggwang house sale), and '법률 경매' (Legal auction). The legal auction section is further divided into '경매교육' (Auction education) and '경매' (Auction). The advertisement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al estate agency.